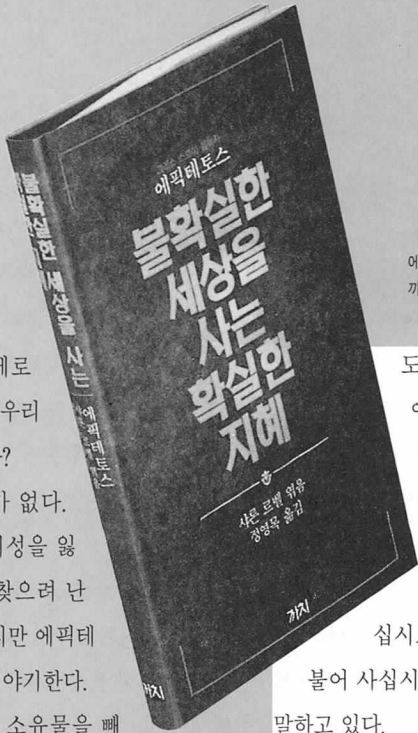


## 난세 견디는 법 일러주는 '철학적 처세술'

에픽테토스의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확실한 지혜》



에픽테토스 지음 · 사론 르벨 위음/정영목 옮김  
가치/B6변형/160면/65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 난리를 부릴 것이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한다.

“나쁜 사람이 당신 소유물을 빼앗아가서 화가 났습니까? 애초에 당신에게 그것을 주었던 세상에 되돌려 준 것뿐인데, 왜 상관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그것을 맡긴 동안 소중히 아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여관방을 진중히 이용하듯이 말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확실한 지혜》에는 상식의 허를 찌르는 에픽테토스의 잠언이 지리처럼 곳곳에 매설돼 있다. 그 '지리'를 하나 더 더 들여보자. 만약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가정해보자. 이 질문에 대해 에픽테토스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

“그 사람은 내 다른 결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모양이구려. 그걸 알았더라면, 그것 한가지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오.”

### 파격적인 인생론 펼친 잠언록

'소크라테스의 재림'이라는 칭송을 들었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세속적 잣대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인생론을 펼친다. 다양한 예를 들어 설파하고 있는 이 인생론을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이다. 생각을 바꾸면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

도 견딜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라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느낌입니다”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십시오. 불가피한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더 물어 사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고 말하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관점을 바꿔 세상과의 불화를 치유하면, 마음의 평정에 이를 수 있다고 설파한다. 에픽테토스에게 철학은 바로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다. 특히 '철학하는 삶'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대목에서 '부드러운' 에픽테토스가 자신의 원칙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강경파'로 변한다는 점이다. 자기를 '바꾸라'고 했던 에픽테토스가 자신을 “지켜라”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삶의 안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수준을 계속 낮춰 온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들은 철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디쓴 앙심을 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영적 이상의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늘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초라해진 영혼들의 자극에 일이 반응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동정심을 품으십시오. 동시에 선하다고 믿는 것을 고수하십시오.”

### 노장사상과의 연관성 엿보여

이 책은 '주체와 세계의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라는 고전적 물음에 대한 한 답변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에픽테토스는 그 답을 주체를 바꾸는 데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박이문의 《노장사상》(문학과지성사)이 자주 떠오른다.

박이문은 노장사상의 요체를 '관점의 전환'이라고 보면서 “인간의 우환이란 궁극적 문제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인간의 우환은 그 원인이 외부조건에 있지 않고 우리들 자신의 내부, 우리들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은 ... 우리들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뤄진다”고 말했다. 비록 에픽테토스의 본격적인 저서는 아니지만, 이 책과 박이문의 책을 같이 읽으면, 최근 들뢰즈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스토아철학과 고대 동북아 사상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책을 읽고서도 개인적으로 에픽테토스의 견해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주체와 세계의 대립을 푸는 방법으로, 에픽테토스의 생각과 달리, 세계의 변화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떡국을 먹어 나이드도 한 살 더 먹었는데, 여전히 철이 들지 않은 모양이다.

— 이권우 기자